

“광주패션 제2의 부흥기 열고 싶어요”

2018 주목! 이 사람

〈11〉 ‘텔레시스’ 대표 황미나

전남대서 음악 전공후 파리 유학
패션 공부후 마레지구에 매장 운영
지난해 25년 프랑스 생활 접고
고향 광주 돌아와 ‘텔레시스’ 오픈
인생 2막...강단서 후배 양성 계획도



광주시 동구 금남로 ACC디자인호텔 1층에서 ‘텔레시스’를 운영중인 황미나 대표.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인 것처럼 의상은 우리 몸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정열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 의상에 담고 싶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ACC 디자인 호텔 안에 있는 ‘텔레시스(TELESIS)’에서 디자이너 황미나씨를 만났다. 화려해보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브랜드샵을 운영중이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 파리의 마레지구에서 여성복매장 ‘텔레시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1월 귀국했다.

“사실 원래 전공은 패션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공부했고, 대학에서는 바순을 전공했죠. 음악학과를 나왔지만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그 대신 패션에는 항상 관심이 많았죠. 이미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1992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황 씨는 사촌언니가 유학을 가 있는 프랑스로 떠났다. 프랑스어 공부부터 하나씩 시작했다. 파리에 있는 에스모드 패션학교에서 3년간 공부한 후 디자이너로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대학교 졸업 후 파리로 떠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부모님은 졸업 후 결혼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졸업하고 유학을 갈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결혼이 아닌 일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궁금했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2000년에 패션학교를 졸업한 황씨는 1980년대 파리 패션을 이끌던 클로드 몬타나(Claude Mon-

tana)에서 일했다.

황씨는 “몬타나에서 일할 때 막내 디자이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컬렉션에 바로 투입됐다”며 “내가 항상 동경하고 지향하던 브랜드인 몬타나에서 일하게 됐을 때 정말 기뻐했다”고 말했다.

또, “몬타나에서 만난 실장님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며 “그분은 항상 “이미 있는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이후 발렌시아가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파리 패션협회의 후원을 받아 ‘파리 기성복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02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인 파리 마레지구에서 자신만의 브랜드인 ‘텔레시스’를 열었다. 텔레시스란 지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목표·목적에 이르는 것이다.

“제가 만든 옷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전문직 여성이 입길 바라는 마음에서 브랜드 이름을 텔레시스라고 지었어요. 사실 제 목표를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패션학교에서는 남성복을 전공했어요. 이후 남성복분야에서 일을 해오다가 여성복 전문 브랜드를 만들었죠. 아무래도 제가 여자가기 때문에 여성복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즉 여성복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황씨의 의상은 A라인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랫단을 과감하게 비대칭으로 잘라 절제된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색상은 주로 검은색이다.

그녀의 의상은 주로 디자이너 등 개성이 강한 고객층에게 인기가 많았다. 단골 고객이었다 루이비통의 한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황의 옷은 카피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파리에서 25년 이상을 살아온 그녀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디자이너로서 컬렉션에 참가하면서 텔레시스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남성복, 여성복뿐 아니라 홈데코까지 분야를 넓혀 종합 브랜드로 만들 예정이었다. “텔레시스를 브랜드화시켜서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중국 등 큰 회사에서도 함께 일하는 제의가 있었지만 제가 개인디자이너라는 이유로 계약이 무산되기도 했어요.”

황씨는 그러던 어느 날 “어렸을 적 내가 꿈을 꾀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2016년 마레지구의 텔레시스를 정리하고 2017년 프랑스 생활을 마감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월 광주로 돌아왔어요. 일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 가면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금남로에 텔레시스를 오픈하게 됐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해서 12월9일에 오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중인 황씨는 패션 2세대로서 다시 한 번 패션을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귀국해 광주로 오면서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일에 대한 2막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 하고 싶어요. 벤지유, 드맹을 이어 다시 한 번 패션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황 씨는 또, 기회가 된다면 강단에도 설 계획이다. “한국에 와서 잠깐 동안 동산전문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강단에 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018년 목요일국악한마당 개막 공연

2월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2018년 목요일국악한마당 개막 공연이 오는 2월1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2003년부터 시작된 목요일국악한마당 공연은 매년 40여 회 공연을 무대에 올려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으며 국악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개막 공연에는 풍물연희예술단 ‘광대’가 ‘갈놀이와 액뎀이굿’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대’는 전통풍물연희전문단체로서 전통연희 예술의 맥을 잇고 있으며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교육, 창작공연활동을 통해 전통풍물예술의 저변 확대와 대중적 공감을 이루어내는 전문단체다.

이들은 풍물이라는 전통타악예술의 장르적 특성을 통해 시대와 공감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또, 오는 2월8일에는 대금 연주회를 열 예정이며 2월22일에는 (사)풍류회 ‘죽산방’을 초청해 풍류음악 공연을 펼치는 등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목요일국악한마당은 오는 2월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40여 회 상설운영될 예정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이상록 한국음악상 공로상 수상

광주시지회, 우수지회에 선정

(사)한국음악협회(이사장 이철규)가 2017 한국음악상 각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했다.

공로상 수상자로 피아니스트 이상록(사진)이 선정됐으며 광주광역시지회(회장 김우정)는 작년에 이어 우수지회에 선정됐다.

1979년에 제정된 후 매년 시상하는 한국음악상은 우리나라 음악계의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로, 국내외 음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지회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공로상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이상록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음악원 그네신에서 수학하며(1991~1997) 피아노, 실내악, 음악코치 등 세 개의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내외 독일, 러시아, 미국, 스리랑카, 오



스트리아, 일본, 홍콩 등에서 독주회와 다양한 형태의 클래식 음악회, 기획 연주, 성악 리사이틀, 실내악 콘서트 등을 열기도 했다. 또, 연주자 및 음악감독, 작곡, 편곡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피아노 앙상블인 선 클라비어(SUN_KLAIVIER)와 위즈(WE_us)앙상블에서 음악감독, 광주교류센터 음악위원, 광주음악협회 피아노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음악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낮 12시에 서울 대한민국예술인센터 3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문의 010-3625-511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서구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개최한다

광주 서구가 ‘숨어있는 우수한 관광자원 발굴’을 주제로 제2회 광주서구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새로운 관광자원인 역사문화 명소 및 축제 등을 발굴하여 명품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

사진공모전을 통해 서구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호수공원, 서창 만드리 풍년제, 영산강 서창들넉 역사축제 등을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작품은 사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과 문화역사 명소, 생동감 넘치는 축제 및 전통민속의 서구 지역의 풍경 및 주민 공동체 활동상이 담겨 있는

옛 사진도 가능하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1인당 4점씩 오는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062-228-4774)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금상 1점 상금 200만원, 은상 2점 상금 각100만원, 동상 3점 상금 각50만원을 포함해 총 60점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서구청 1층 로비, 서구문화센터, 상무역, 농성역 등에 전시하고 홍보물로 제작해 관광객을 전국에 알리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문의 062-360-76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